

## 광동 마카오 방역 공동 대응, 매일 즉시 몇 차례 통보

2월 10일 24시, 광동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감염 확진자 누계는 1177명으로, 10일 광동성의 추가 확진자는 26명이다. 누계 완치 환자는 181명이고 누계 사망자는 1명이다. 의심 환자는 148명이며 3093명의 밀접 접촉자가 현재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

광동 주하이와 인접한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전염병 추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양 지역에 공동대응 메커니즘을 건립하여 전염병 정보, 치료방안, 예방 정책, 항구 사무 등에 대하여 매일 상호 보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일 10시, 15시, 17시에 주하이-마카오 양 지역은 상기 정보들을 상호 통보하여 최근에 이르러, 상호 발신한 정보는 240건이다. 이 밖에도 공동대응 메커니즘은 양 지역의 횡적, 종적 소통을 모두 실현했다. 횡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주하이-마카오의 크로스보더 항구 협력, 경찰업무 협력, 의료 환자 이송 협력 등의 메커니즘을 융합 관통시키고; 종적으로는, 위로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 장관과 주하이시 공산당 위원회, 시정부 주요 지도자, 아래로 의사 및 간호사, 지역 사회, 농촌 마을과 아파트 단지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염병 상황 발생 후, 많은 마카오 거주민들이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에서 의료 예방 물자를 사들여 주하이에 기부하였다. 최근까지 주하이시가 마카오에서 기부 받은 의료 전용 마스크는 25만개, 방호복은 8500여 개이다.

주하이 완자이 항구는 올해 1월 23일 부터 다시 개항했다. 항구에서 사람들이 집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바이러스 감염과 전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하이-마카오 쌍방 협상으로 개방시간을 12시 45분부터 22시까지로 조정하고, 페리선의 출항시간을 원래의 15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조정했다.

# 광동성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최신 상황

(2020.2.10 24 시 기준)

합계	1177 확진	1 사망	181 완치
도시	확진자(명)		
광저우	317		
선전	375		
주하이	86		
산토우	25		
포산	70		
샤오관	7		
허위엔	3		
메이저우	13		
웨이저우	53		
산웨이	5		
동관	62		
중산	58		
지양먼	20		
양지양	13		
간지양	21		
마오밍	11		
자오칭	15		
칭위엔	10		
차오저우	5		
지에양	8		